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 기념회보

발행인 이기수 편집인 제재형 편집주간 김일주 편집장 권래현

발행일 2011년 7월 11일

사무국 110-500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번지 이화장

TEL : (02) 741-0815 FAX : (02) 766-0185

E-mail : rhiwhachang@hanmail.net

www.syngmanrhee.or.kr

# 이승만회보

THE FLICKERING FLAME



제59차 이승만 강좌  
이승만과 독립운동  
지역과의 관계 비교

(사)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



사단법인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는 이승만박사 서거 46주기를 맞아 7월19일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엄숙한 추도식을 갖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승만대통령 재평가 움직임에 발맞춰 이번 46주기 추도식에는 국내외 주요인사들과 많은 국민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소 이승만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7월19일 10시 국립현충원으로 오셔서 이승만대통령의 건국정신을 되새기고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또 서명자가 6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이승만대통령기념관건립과 동상제작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셔서 대한민국 건국일인 8월15일까지 백만 명 서명이 가능하도록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사)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 (사)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임원명단

<b>회장</b>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
<b>명예회장</b>	강영훈
<b>부회장</b>	이인수
<b>상임고문</b>	이철승 김수한 박관용 김형오 노신영 정원식 이흥구 서영훈 김동길 홍석현 이상득 박세환 김문수 신영균 (무순)
<b>고문</b>	장경순 송월주 안병훈 박경원 공정식 정근모 이해원 정기승 안응모 김진현 손세일 김영수 남시욱 이상우 현경병 이환의 안무혁 조갑제 서정갑 최재분 백영훈 김현욱 유명익 주완식 한승조 백상창 송 복 유택희 박 근 이상연 이수덕 한철수 김경오 임광규 이응선 류석춘 남종우 김점곤 류근창 김경래 정의승 이대용 김창규 조용기 박상준 이원복 이성근 이동복 윤영탁 (무순)
<b>이사</b>	이인수 김선도 제재형 최승욱 신경식 신재성 이성재 이동호 추경석 이종찬 이도형 정순훈 이인용 이원근 민봉기 탁재용 이강욱 김익래 조남원 윤영노 박희모 박동선 이영석 심인홍 이강룡 김수경 김태욱 송두영 (무순)
<b>지도위원</b>	김충남 양동안 한창희 이경식 전봉렬 여영무 최종고 정진수 이석복 전재범 김성욱 남정옥 김광동 김덕중 윤덕순 김현태 김도현 변동수 이종근 김충용 윤여훈 박석흥 정인섭 이희범 이종덕 유지호 이춘근 이영훈 이대근 정일화 최상오 오영섭 류석렬 김정연 허중화 김득연 전석환 이현식 박남식 이준일 조우철 이순창 고문승 객찬호 김성수 조병륜 신현정 김석우 임광수 이건호 안국승 안찬일 문제의 김명신 김상모 임형태 심평중 이창화 이증기 홍중기 윤사무엘 (무순)
<b>자문위원</b>	이용희 김도경 김성동 김중철 김학박 박후걸 송영언 오철규 윤정현 이균철 이재춘 한기환 김정호 권래현 이우창 김홍수 김영봉
<b>이승만연구회 회장</b>	이주천
<b>사무총장</b>	김일주
<b>이승만회보 편집장</b>	권래현

### 후원금을 보냅니다,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국민은행	525237-96-100110
농협	100125-55-001125
신한은행	100-024-087634
하나은행	194-810205-32205
예금주	(사)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



## CONTENTS VOL.68 2011 | 07 JULY

- |           |                                    |           |                                     |
|-----------|------------------------------------|-----------|-------------------------------------|
| <b>04</b> |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바로 알리자 · 이기수         | <b>18</b> |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br>이승만의 상해 체류 활동 · 오영섭 |
| <b>05</b> | 누가 이승만 대통령을 評價할 수 있을까? · 이완근       | <b>20</b> | 이승만기념사업회 역사적 4.19묘지 참배 무산           |
| <b>06</b> | 이승만 대통령 46주기에 부쳐 · 박세환             | <b>21</b> | 이승만기념사업회 성명서                        |
| <b>08</b> | 기념사업회 및 관련단체 소식                    | <b>22</b> | 4.19묘지 참배 무산 관련 신문 보도               |
| <b>12</b> | 이승만 대통령의 漢詩                        | <b>24</b> | 부산 임시수도 거리 및 임시수도 기념관               |
| <b>13</b> | 제59차 이승만 강좌                        | <b>26</b> | 이화장 춘추 <18> · 이인수                   |
| <b>14</b> | 독립 · 건국운동 시기<br>이승만과 좌익간의 관계 · 양동안 | <b>28</b> | 이재형 전 국회의장을 기리며 · 제재형               |
| <b>16</b> | 이승만의 미주지역에서<br>독립운동방략과 독립운동 · 남정옥  | <b>29</b> | 새책소개   우리의 건국대통령은 이렇게 죽어갔다          |
|           |                                    | <b>30</b> | 새책소개   생각 바꾸기                       |



#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바로 알리자”



회장 이기수

항상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대의원 여러분, 그동안에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월 모교인 고려대 총장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2월24일 사단법인 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회장직을 맡은 것을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집안으로 보면 이승만 박사는 전주이씨 양녕대군과 16세손으로 17세손인 저의 아저씨뻘이 되는 분 이시고 개인적으로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가르친 저로서는 인생과 학문의 영원한 멘토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기념사업회를 대표하시는 대의원 여러분들이 회장직을 맡은 저에게 뜨거운 박수로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앞으로 이승만박사기념사업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고려대 총장직을 끝내자마자 바로 미국의 조지워싱턴대학 로스쿨에 객원석좌교수로 부임하는 관계로 그동안 제대로 회장직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7월에 완전귀국을 하게 되면 그동안 못했던 회장으로서의 소임을 120% 해내겠다고 대의원 여러분 앞에서 감히 약속드립니다.

우선 저는 최근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잊혀져가고 있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젊은이들의 롤모델(roll-model)로 만들겠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미국의 명문 조지워싱턴대학과 하버드대학, 프린스턴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5년 만에 따내신 이승만 박사는 우리 젊은이들이 아무리 존경해도 지나치지 않을만한 천재이며 위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선 만화와 전기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이승만 박사를 알리고 지난 10여 년간 좌파세력에 의해 잘못 제작된 초·중·고 교과서를 바로잡아 이승만대통령 바로 알리기 운동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저는 얼마전 워싱턴 D.C.에서 평소에 친분이 두터운 손병두 KBS이사장을 만나 회장 취임이후 가장 좋은 말을 들었습니다. 손 이사장님은 제가 선물한 건국대통령의 저서 ‘독립정신’을 비행기 속에서 다 읽고 “인생을 바꿀만한 귀한 책을 읽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좋은 책을 좀 더 일찍 읽었더라면 인생을 애국정신으로 더욱 값지게 살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해주셨습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 이념적 이유로 인해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과소 평가돼 왔습니다. 그들도 손병두 이사장님의 말씀처럼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금방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물론 전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이승만 박사를 바로 알고 존경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이신 대의원 여러분과 이사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맨 앞에는 항상 제가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누가 이승만 대통령을 評價할 수 있을까?



이사 **이완근**

과거의 역사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그 시대 상황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다.

올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정보 속에서 몇몇 사람들이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 등을 통해 여론을 선동하고 있고 동조하는 일부 언론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승만 대통령을 폄하하는 글들이 오르고 있다 나는 이들에게 과연 누가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의 크나 큰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고 싶다.

이승만 박사는 19세기 말 조선에 대한 외세의 간섭이 심각해지면서 서재필을 중심으로 한 선각자들이 자주독립 정신을 보존하고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협회를 통해 국민 계몽운동을 전개하고 부패하고 외세 의존적인 관리들을 비판하고 다른 나라에 利權을 내주는 것을 반대했으며 입헌군주제를 비롯한 근본적인 정치사회개혁을 주장하면서 이 협회의 청년지도자로 두각을 나타냈다. 1899년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도 만민공동회 등에서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략을 비판하면서 연설력과 넓은 안목으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미국에서 워싱턴 군비축소회의를 비롯하여 미국정부 및 국제연맹 등과의 외교교섭을 통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다 1945년 광복 후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된다. 현재의 기준에서 그의 활동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시대 민족지도자

들이 가장 유능하다고 판단된 인물로 추대한 것이다. 현재의 사람들이 추앙하는 김구나 안창호 등등 많은 훌륭한 인물이 있었지만 그 시대 상황에서는 이승만 박사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 당시 평가였을 것이다.

일제 강점기간 이승만 박사는 외교독립론자였다. 현재 일부의 사람들은 이승만 박사의 외교독립론을 많이 비판하기도 한다. 위험한 일은 하지 않고 안전한 곳에서 독립자금만 펄펄 썼다고도 한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강조하는 우리 민족의 항일투쟁은 성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청산리대첩과 봉오동전투를 자주 이야기한다. 당시 약하고 힘없는 민족이 미국과 싸우는 일본에 전면전은 아니었지만 승리를 거둔 것은 굉장히 큰일이였다.

그러나 그 전투로 인해 독립을 쟁취한 것 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이 되지 않는다.

결국 우리나라의 건국은 일본의 패망과 서양 열강들이 주관하는 카이로회담과 포츠담회담을 통해서 이뤄졌다. 분명히 이승만 박사가 활동했던 구미위원부 등의 외교적인 노력의 영향이 더 컸으리라 생각된다. 1948년부터 1960년까지 12년간 집권하면서 해방 전후에 미리 준비했던 건국 구상에 따라, 정치, 외교 등에서 괄목한 업적을 달성했다. 그중에서 돋보이는 것을 정리해보면 첫째, 정치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대통령이며 대통령중심제 정부를 수립했다.

둘째, 외교 분야에서 1948년 8월15일에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수립하였고 유엔과 미국 등 30여개 국가로부터 독립국가 승인을 받아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했으며 1952년에는 동해에 평화선을 선포하여 독도를 포

함한 인접해양에서 한국의 주권을 행사하여 어족자원 등을 보호하는데 기여했다. 또 1953년 10월에는 미국을 압박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셋째, 경제 분야에서 가장 괄목할 성과는 농지개혁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실현한 '농지개혁'은 삼림과 임야 등 비경지(非耕地)가 제외되고 농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였다. 이승만대통령의 농지개혁은 대한민국 역사상 여러 모로 획기적인 의의를 지닌 것이였다. 농지개혁은 토지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사상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이 개혁은 한국의 전통사회를 지배한 양반지배층의 몰락을 초래, 지주배정의 한국민주당 세력을 약화시키는 사회-정치적 효과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였다.

넷째, 교육 분야에서는 전쟁이 끝난지 2년 만에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지만 교육과 인재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며 인재를 해외로 유학 보냈고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여 해방 당시 80%나 됐던 문맹률을 59년에는 22%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이는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이외에도 많은 업적이 있음에도 사람들은 현재의 기준에서 부정부패나 친일청산 실패 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일부언론이나 인터넷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나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오히려 북한을 더욱 미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누가 이러한 큰 업적을 이룬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할 수 있던 말인가? 그들에게 묻고 싶다.

후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이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했다고 말하고 싶은가?



# 이승만 대통령 46주기에 부쳐



오늘은 대한민국의 건국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님께서 서거하신지 4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유유히 흐르는 한강의 물결과 남산을 바라보는 동작의 묘소에서 어른을 추모하는 저의 마음은 대학1학년때 경무대 꽃구경을 갔다가 지근에서 보였던 그 온화하고 인자하신 이대통령 내외분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른께서는 조선왕조말 선비집안에서 태어나 한학을 배우고 배재학당에서 신학문을 배운 개화의 청년으로 언론과 개혁운동의 선봉이셨으며 독립협회사건으로 옥중생활중에도 새나라 건설을 위해 “독립정신”을 저술하셨습니다.

구국의 밀사로 미국에서 외교활동을 하시는 중에도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에서 면학하시어 1910년에는 철학박사의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망국의 서러움을 안고 귀국하신 박사님은 서울YMCA의 학감직을 맡아 청년교육에 힘쓰시다가 일제의 탄압으로 1912년에 다시 미국으로 망명하시었고, 3·1운동 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대통령으로 독립운동을 영도하시며 조국의 광복을 위해 투쟁하시다가 1945년 10월16일, 33년만에 해방된 조국에 돌아오셨습니다.

1945년 8월 8일, 소련의 대일참전으로 38선 이북을 소련군이 점령하면서 북한에 공산화가 시작된 한반도는 알타밀약으로 미·소 간에 합의된 신탁통치 대상지역이었으나 미군정하의 남한은 이러한 정세를 통찰하지 못한 채 정당이 난립하고 공산당이 정국을 지배하는 상황에 이르렀었습니다.

이러한 조국의 분단과 공산화라는 환난 앞에서 이박사님의 귀국은 해방정국에 일대 전기(轉機)를 가져왔으니 “몽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는 박사님의 외침은 국민들의 위기의식을 깨우쳤습니다. 박사님께서 연합국에 요구한 “한국의 자주독립과 신탁통치반대 그리고 자유선거를 통한 민주정부의 수립”은 건국강령이 되었으며 군정 3년 동안 이박사님 영도하에 민족진영이 온몸으로 투쟁한 결과 마침내 대한민국을 건국하였습니다.

소련은 38선을 국경화하여 북한을 폐쇄하고, 공산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미 1946년 2월에 김일성단독정부를 세웠으며 조선공산당에 신탁통치를 지지하게 하여 미·소공동위에서 공산당만의 한국정부수립을 추진하다가 미·소공동위는 마침내 결렬되었습니다. 이승만박사님은 일찍이 미·소공동위의 실패를 예견하시고 한국문제의 UN이관을 위해 외교활동을 추진하여 마침내 한국문제가 UN에 이관되고 1947년 11월 14일, UN감시하 남북한선거가 결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련과 김일성정권은 북한의 단독정부인 공산정권을 유지·강화하기위해 북한선거를 거부하였으니 곧 평화적 남북통일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박사님의 건국강령에 따라 UN감시하의 자유선거로 제헌국회를 열어 자유민주주의의 체


제하의 헌법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나라있는 백성으로 세계사에 등장하였습니다.

국제적 권력정치가 난무하고 국내 공산당과 각종 정파가 난맥상을 보인 해방정국에서 박사님은 참으로 세계정세를 달관한 군계일학(群鷄一鶴)의 경세가이였으며 우리를 공산화의 위기에서 구해주신 어른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우리 민족이 만남을 극복하여 생취한 민족사상 초유의 민주공화국이였으며 이것은 오로지 박사님의 지혜로운 영단과 영도력의 소산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다시 세운 대한민국은 공산당의 6·25남침으로 위기에 봉착하였지만 이대통령은 불퇴전(不退轉)의 용기로 미국을 위시한 16개 참전국의 자유수호전선을 이룩하고 일선의 장병을 독전(督戰)하여 국제공산주의의 세계적화 음모를 분쇄하였습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선이 교착되고 휴전이 거론되자 이대통령은 통일 아닌 휴전을 반대하여 1953년 6월 18일에는 2만7천명의 반공포로를 석방 하시고 휴전수락의 조건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경제원조 및 원조자금공여, 육군 20개사단과 해공군력의 확장 등 우리의 장래를 위한 지원을 생취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전쟁후에는 교육입국의 이념을 실현하여 인재양성에 힘쓰시고 기간산업육성과 원자력의 도입 등 산업발전의 기초를 마련하여 오늘날 선진대한민국의 토대를 쌓으셨습니다. 이와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대통령은 건국과 근대화의 혁명가요, 글로벌 엘리트이며, 현대 한국 민족주의의 원류가 되는 사상가며 문필가며 애국시인이셨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200여수의 한시(漢詩)가 이것을 입증합니다.

평생을 통해 국가 재정이나 사생활에 근검절약하고, 독립정신과 민족애에 투철하며, 국익과 공익우선의 도덕성이 강했던 이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은 이 시대 지도자의 귀감으로 추앙하며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른의 46주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승만대통령을 흠모하면서 평소의 가르치심에 따라 굳게 뭉치고 힘을 합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며,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된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며 천상홍복을 누리시옵소서. 



2011년 7월 19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박 세 환



## 2011년 정기대의원총회 이화장에서 개최



(사)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는 6월 22일 이화장에서 2011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기수 신임회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전국에서 모인 100여 명의 대의원들은 지난 2월24일 이사회에서 강영훈 전회장의 후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기수 회장에 대해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이날 총회는 지난 3월초 열릴 예정이었으나 사정에 의해 연기됐다. 대의원총회는 지난해 집행예산을 승인하는 한편 올해 예산과 사업계획도 확정했다.

한편 총회는 정관개정과 심의를 담당할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김태옥 한국라이온스 총재와 송두영 국민화합운동본부 이사장을 새 이사로 보강했다.

## 이승만기념사업회 대구지부 개소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대구지부가 지난 4월22일 문을 열었다. 대구지부는 이날 이인수 기념사업회 부회장과 이성재 이사, 김일주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지부 개소식을 갖고 건국대통령 기념사업을 활발히 추진키로 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이상동 장로를 지부장으로 위촉했고 대구기독교 총연합회 류지원 사무총장과 대구서남장로회 회장 신중락 장로 등 지부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대구 외에 부산과 강원, 성남 등에서 기념사업회 지부활동을 벌이고있다.

## 이승만 박사 46주기 추도식 7월19일 개최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는 오는 7월19일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서거 46주기를 맞아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엄숙한 추도식을 갖기로 했다. 지난 1965년 7월19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서거하신지 46주기가 되는 올해 추도식은 최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있는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 움직임에 반영 과거 어느 해보다도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념사업회는 이번 행사에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이 참가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제2차 미주총회 8월 개최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제2차 미주총회가 오는 8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대회준비위원회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간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 부설 한국문화원에서 제2차 미주총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승만기념사업회 미주총회는 지난 2005년 8월 1차총회를 열었으나 이후 총회를 열지 못했다. 워싱턴지회의 김택용 회장과 윤희균 사무총장이 각각 준비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번 미주총회에는 미국내 8개지회의 대표와 워싱턴지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미주총회는 지난 2월 이승만기념사업회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이 워싱턴의 조지 워싱턴대학 객원 석좌교수로 재직하면서 미주지역에서 본격적으로 기념사업회 활동을 시작하기위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워싱턴지회가 주관하고 한국의 기념사업회가 후원하며 미주 각 지역 지회가 협찬하는 이번 총회에는 한상진 미주총회 회장과 김택용 워싱턴지회장이 각각 ‘불가능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한 이승만의 독립운동’ 과 ‘미주총회의 진로와 개선방안’ 이란 주제의 강연을 한다. 또 참가자들은 이승만 박사의 모교인 조지 워싱턴대학을 둘러보고 이 박사가 기증한 빛나무가 있는 아메리칸대학 등도 둘러 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 박세환 상임고문, 5.16민족상 수상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상임고문이신 박세환 재향 군인회장은 5월16일 서울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5·16 민족상' 시상식에 참석해 '5·16 민

족상(안전보장 부문)'을 수상했다.

박 회장은 32년간 군 생활을 통해 군 전투력 강화에 기여했고, 전역 후에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참전용사와 제대군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법률의 개·제정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시상식 주최측은 "박세환 향군 회장의 튼튼한 국가안보 지원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 5·16민족상 안전보장 부문 수상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박 회장은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1,000만명 서명운동'을 주도했으며, 이를 통해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를 이끌어 낸 장본인으로 유명하다.

또한 박 회장은 15·16대 국회의원 시절 특수임무유공자 보상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과 6.25 참전용사와 제대군인을 위한 법을 개정해 참전용사와 제대군인의 복지증진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상식에는 안전보장 부문에 박세환 재향군인회장을 비롯해 사회 교육 부문에 정승열 한국화장실협회 회장, 과학 기술개발 부문에 서정진 (주)셀트리온 회장, 산업 부문에는 장세일 (주)일성 회장이 각각 수상했으며 '5.16민족상'을 제정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백선엽 장군 등 사회인사들과 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 박세환 재향군인회회장, 기념사업회 예방

박세환 재향군인회 회장은 20일 오후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를 방문, 이승만박사 기념사업에 써 달라고 성금을 전달했다.

지난달 5.16민족상을 수상한 박세환 회장은 이 때 받은 상금 중 일부를 이날 이기수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 회장에게 전달하면서 재향군인회회장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자격의 성금임을 강조했다.

박회장은 이승만기념사업회의 상임고문이기도 하다.

## 이철승 상임고문, 회고록 '대한민국과 나' 출판기념회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상임고문이신 이철승(89) 전 신민당 대표가 지난 5월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회고록 '대한민국과 나: 이철승의 현대사 증언'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전 대표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내가 살아온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 썼는데, 쓰고 보니 이게 우리 현대사였다"고 했다. 7선 의원인 그는

정치 현역시절 '중도 통합론'을 기치로 내거는 등 정치 선진화에 앞장서 왔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이 전 대표가 절충과 타협을 강조하셨는데, 우리 후배들이 국회에서 강행처리 모습을 보이는 등 죄송한 게 많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순·김수한·박관용 전 국회의장, 노재봉·이홍구 전 국무총리, 김덕규·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양정규 헌정회장, 신경식 헌정회 부회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 김덕 전 부총리, 윤주영 전 문공부 장관, 권이혁 전 문교부 장관, 이기택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한광옥·정대철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 권노갑 전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박승서 전 대한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축전을 보냈다.

## '이승만 만화' 연말에 나온다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의 일생을 담은 만화가 연말이면 모습을 보인다.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는 한국만화가협회의 협조를 받아 오는 11월까지 만화제작과 인쇄를 완료하고 12월 중에는 각급학교와 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이승만 만화를 배포할 계획이다.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이승만대통령의 건국정신과 통치 이념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기획된 사업은 지난 4월초 기획단계를 거쳐 5월12일 한국만화가협회 임이록(필명 강촌) 수석부회장을 작가로 선정해 정식 제작계약을 체결했다.

임이록 부회장은 '강촌'이란 필명으로 80년대 이후 국내 만화계를 석권해 왔는데 최근에는 천안함피격사건 홍보만화 제작 등 주로 정부와 대기업의 홍보만화 등을 제작하고 있다.

## 기념사업회 소식

현재 만화가협회 수석부회장으로 국내 만화계의 중진인 임 부회장은 야구만화 '왈패와괴짜들', '고교왈패', '고독한 외아수' 등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80년대 후반 이후에는 '고독한 승부사', '야망의 승부사', '당대 최고의 승부사' 등 승부사 시리즈로 동심을 사로잡았었다.

90년대부터 강춘 선생은 '호모사피엔스', '혈맥', '스카이 파이터' 등 스포츠 서울 등의 신문연재 만화를 주로 그렸는데 이중 '혈맥'은 국내 최장기 베스트만화로 인기를 모았었다.

그는 최근에는 만화가협회업무를 맡아 후배들을 지원하고 있고 목원대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교수로 젊은 만화가들을 양성하는 일도 하고 있다. 상, 하 각 200페이지 내외로 제작될 이승만 만화는 현재 스토리텔링 작업을 하고 있는데 7월에는 그림제작에 들어가고 9월 이후 채색작업과 편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작되는 본격적인 이승만 만화에는 건국 이전 이승만 박사를 비롯한 독립투사들의 생생한 독립운동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국가보훈처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어린이잡지 응진 '생각쟁이', 이승만만화 게재



국내 어린이용 잡지 중 가장 많은 제작부수를 자랑하고 있는 응진생크빅(발행인=최봉수)의 '생각쟁이'가 7월호에 이승만 만화를 게재했다.

생각쟁이는 7월호에서 '만화로 보는 근현대사', 라는 특별기획물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를 그려냈다. 표지 포함 모두 11페이지에 이르는 이 만화는 국내 일류만화가인 김광성 작가가 글과 그림을 맡았는데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의 탄생에서부터 대한제국 시절과 일제강점시기, 해방 직후 등 이 박사의 활동상이 상세하게 실려있다.

특히 이만화에는 이승만 박사의 어릴적 비범함과 조선왕조의 봉건주의와 일제침략에 대항하면서 대한민국을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겪는 인간적 고뇌와 영웅적 면모가 잘 소개됐다.

'생각쟁이'는 각 서점에 시판되고 있으며 값은 9천원이다.

## 관련단체 소식

## 대한민국 정통성 찾을 현대사학회 출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한국근현대사를 연구하려는 학술모임인 한국현대사학회가 20일 오후 1시30분 서울교대 에듀윌센터 컨벤션홀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초대 학회장에 선임된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창립 대회사에서 "우리가 누리는 물질 풍요와 다원적 시민사회는 그네들(우리 할아버지와 부모님 세대)의 피와 땀이 씨앗이 되어 거둔 결실"이라면서, 그럼에도 "우리 지식사회의 한국현대사 연구는 우리가 이룬 성취를 제대로 조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현대사학회는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제대로 조명하지는 취지에서 '한국의 현대사학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이날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학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보정석좌교수는 '한국현대사학의 과제'라는 기조강연에서 한국현대사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일차자료 발굴에 주력 ▲한국현대사에 대한 세계사적 안목에서의 접근 ▲일차자료에 대한 교차점검 ▲정치적·이념적 편향으로부터의 역사해석 왜곡에서 벗어나기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는 '한국현대사 연구와 사관의 문제'와 관련한 발표문에서 한국현대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근대화사관·분단사관·건국사관의 세 가지로 유형화하면서 이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건국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건국사관을 높이 평가했다.

김명섭 연세대 교수는 '한국현대사 인식의 새로운 진보를 위한 성찰'이라는 논문에서 "반공주의라는 인식틀에 맞서서 현대사의 진실에 다가가고자 했던 노력은 역설적으로 '반반공'이라는 새로운 인식틀을 만들어냈다"면서 "냉전시기 반공이 절대적 기준이 된 반공주의가 학문을 억압했다면 도그마가 된 '반반공' 역시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른바 진보 좌파 진영이 북한에 대해 3대 세습 독재나 정치범수용소의 참상에 대해 어떠한 비판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김일성에 대한 한국지성계의 인식적 궤적은 반공주의와 반반공주의를 오가는 롤러코스터를 연상시킨다.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경력을 직시하되 그것이 공산주의에 입각한 것이었다는 점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조봉암 무죄는 노무현 추종세력의 정치적 판결” 이경식자유언론수호포럼대표, 이승만포럼서 주장

뉴데일리 부속 이승만연구소가 주최하는 제4회 이승만포럼이 이승만과 조봉암이라는 주제로 6월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 포럼에서는 자유언론수호포럼 이경식 대표가 나와 지난 1월 대법원이 내린 ‘조봉암 사건 판결’에 대해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과거사위원회의 권고결정에 따른 정치적 판결일 뿐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따른 판단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조봉암 사건은 북한이 해방 후 남한 정국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공작에 의한 명백한 간첩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경식 대표의 발표를 요약한 것이다.

### 이경식 대표의 포럼 발표 요약

지난 1월 대법원은 1959년 간첩혐의로 사형당한 진 진보당 당수 조봉암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당시 법원의 법률적용이 잘못됐고 유일한 증거인 관련자의 자백 또한 감금과 약물투여 등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무죄판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과거사위원회’의 권고결정에 따른 정치적 판결일 뿐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따른 판결은 아니다.

특히 해방전 행적부터 건국이후 활동 전반을 볼 때 조봉암은 조선공산당은 물론 중국공산당과도 관계하면서 코민테른의 인준을 받은 골수 공산주의자가 틀림없다.

당시 조봉암사건에 대한 재판은 유력한 대통령후보가 연루된 간첩사건이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공개 재판으로 열렸으며 사건의 비중에 걸 맞는 쟁쟁한 변호인들과 검찰사이의 치열한 법리논쟁 속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명확히 밝혀진 재판이었다.

조봉암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재판과정에서 그가 간첩 양명산에 보낸 ‘비밀통신문’이 적발됐고 이것이 결정적 증거가 돼 사형이 선고됐다.

명백한 증거와 진술을 통해 밝혀진 간첩사건을 장기독재를 위한 정적 제거나 사법살인으로 보는 시각은 국가적 비극이며 이제라도 조봉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바라봐야 한다.

결국 조봉암 사건(양명산 간첩사건)은 휴전후에도 이어진 북한의 집요한 대남 공작중 하나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간첩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대통령후보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오히려 실체적 진실규명이 안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재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22조가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공산당을 합법화해야 참다운 민주국가”라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사위원회’ 권고결정에 따른 판결이다.

특히 조봉암은 일본유학 시절 ‘흑도회’에 가입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했다. 1922년 상해파 고려공산당과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의 화해를 위한 ‘베르크후네우딘스크’ 회의에 국내 대의원으로 참석했으며, ‘동방근로자 대학’을 나와 코민테른에 관계했고 조선공산당 결성에 참여하는 등 코민테른 인준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좌익과 중간파들이 1948년 5·10총선거를 거부할 때 제헌의원 선거에 참여, 대한민국 건국에 일조를 함으로써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그를 초대 내각의 농림부장관에 기용하고 여당인 대한국민당에 참여케 했으며 제2대 국회에서는 국회부의장에 올라 1952년 부산정치파동 당시 발취개헌에 일조, 국가적 정치안정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양명산에 연루돼 붉은 자금을 받아 쓴 것이 마음에 걸렸던지 그는 당시 공안검사 조인구에게 “이 박사님께 죄송하다”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는 비화도 있다.

조봉암의 간첩행위는 항소심 재판 당시 그가 교도소 간수를 매수해 간첩 양명산에 보내려 했던 비밀통신문(사진)에 그대로 드러난다. 조봉암은 양명산에게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나와 우리 진보당 동지들의 정치적 생명을 좌우한다”며 혐의내용을 “결사적으로 부인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또한 1956년 조봉암의 진보당은 당시 북한의 대남 공작구호였던 ‘평화통일’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북한은 조봉암이 사망한 후 그를 추모하면서 여운형 등 좌파 공산주의자를 기려 만든 평양 애국열사릉에 그의 묘를 조성해 놓았다.

1959년 조봉암이 무죄로 풀려나고 이승만이 하야 후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금의 우리 정치 현실을 돌아보면 실로 안타깝다. 조봉암의 진보당보다 더 조직적이고 막강한 ‘작통 진보당’과 조봉암보다 더 막강한 ‘작통 조봉암’들이 2012년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待和韻不到

縱	南	排	今
我	禽	日	宵
孤	夢	騷	不
軍	苦	壇	見
非	關	聞	耀
敵	重	泣	長
手	掩	鬼	庚

緣	北	困	殘
何	鴈	春	月
早	聲	墨	下
閉	遲	壘	窓
五	漏	臥	更
言	易	休	鼓
城	傾	兵	鳴

화운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서	오늘 밤엔 長庚星 비치질 않고	오경의 종소리에 달조차 지다.
騷壇에선 날마다 귀신 울더니	고향을 그리자니 꿈이 괴로워	墨壘兵이 봄에 취해 누워있나봐.
내 어찌 적수야 되리오마는		소식은 아니 오고 날만 가노라.
		五言城을 굳이 단진 말아주소서.

註

① 長庚… 별 이름인데, 문장을 맡은 별임.  
이태백의 모친이 꿈에 장경성을 삼키고 태백을 낳았다 일컬음.

② 五言城… 유장경이 오언시를 잘하여, 오언장성으로 자처하였음.

# ‘이승만과 독립운동지역과의 관계비교’

## 이승만과 좌익관계 규명



(사)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의 이승만연구회(회장=이주천)가 마련한 제59차 이승만 강좌가 지난 6월17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 아펜젤러홀에서 개최됐다.

‘이승만과 독립운동지역과의 관계비교’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좌에는 이승만 연구회에서 국내 3대축을 이루는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와 남정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오영섭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연구교수가 참가해 각 지역별 주제발표를 함으로써 큰 박수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좌익 간의 관계를 집중 조명한 이번 강좌에서는 또 김일주 고려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와 김남균 평택대학교 교수, 유광호 한국전략연구소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가해 이주천 회장의 사회에 따라 열띤 토론을 펼쳤다.

양동안 교수는 ‘독립 · 건국운동 시기 이승만과 좌익 간의 관계’라는 발표를 통해 “이승만은 권력에는 집착이 강했지만 사상에는 오히려 유연했다”고 밝히며 “그의 사상은 좌익을 거부하는 자유주의라기보다는 좌익과 우익의 구분 없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실용주의 노선에 가까웠다”고 강조했다.

남정옥 책임연구원은 ‘이승만의 미주지역에서 독립운동방략과 독립운동’이라는 발표에서 “이승만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략가이자 이를 실천할 줄 아는 추진력 강한 독립운동 외교가”였다고 평가하고 “특히 이승만은 국제정세의 흐름, 그 중에서도 미국 지도부의 판단을 정확히 읽고 행동했으며 2차대전 중 한국의 독립을 처음으로 인정한 카이로 선언을 포함한 각종 국제회의와 한국외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영섭교수는 “이박사가 생해임정의 분란을 초래하고 이를 수습하지 못한 채 미국으로 도망했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생해임정은 원초적인 구성에서부터 분란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주장하고 “처음부터 좌파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 이승만으로서는 이를 모두 수용하기가 불가능했다”고 결론지었다. <편집자 주>

# 독립 · 건국운동 시기 이승만과 좌익간의 관계

양동안 |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독립운동 시기와 건국운동 시기에 있어서 이승만과 좌익 간의 관계는 상해임시정부 초기, 1930년대 후반과 1940년대 전반, 1945년 10~12월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시기 등 3개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상해임시정부 초기 이동휘와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좌익세력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임시정부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노력했다. 이승만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자, 좌익세력은 이승만을 제거하기로 작정했다. 좌익세력은 자기들 역량만으로는 이승만을 제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안창호세력을 이승만 제거공작에 끌어들었다. 좌익세력과 안창호세력은 1923년 상해에서 국민대표대회를 개최하여 이승만을 배제한 임시정부를 구성하려 했다. 그러나 국민대표대회는 창조파와 개조파로 크게 분열되어 그들의 뜻을 관철하기 어려웠다.

국민대표대회에서 이승만을 제거하고 임시정부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실패한 좌익세력과 안창호세력은 1924년부터 임시정부 의정원을 통해 이승만을 제거하고 임시정부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공작을 전개했다. 그들은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여 임시정부 의정원의 다수파를 형성한 후, 1924년 6월 이승만의 임시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키기 위해 ‘임시대통령 유고안’을 통과시켰다. 그해 11월에 임시정부 내의 이승만파를 몰아내고 박은식을 임시대통령 직무대리로 임명하여 임시정부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그들은 뒤이어 1925년 3월 이승만을 탄핵하여 임시대통령 직을 박탈하고 자기들의 말대로 따르는 박은식을 임시대통령에 선출했다. 그들은 이승만이 워싱턴에 구성해놓은 대한민국 구미위원부까지 폐쇄하여 이승만의 독립운동 발판을 없앴다.

1930년대 후반과 40년대 초반 좌익세력과 안창호 추종세력은 이승만으로부터 미국 한인사회에서의 독립운동 주도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이승만에 대한 공격을 전개했다. 좌익세력은 한길수라는 운동가를 포섭하여 이승만을 공격했고, 안창호세력은 재미한족연합회라는 단체 결성을 통해 이승만을 공격했다.

한길수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좌익 독립운동세력이 결성한 중한민중동맹의 미주대표 및 조선민족전선연맹 미주대표로 선정된 인물이다. 재미한족연합회는 미국 한인사회의 안창호 추종세력이 주도하여 결성한 단체이다. 한길수와 재미한족연합회 측은 연대를 형성하여 이승만으로부터 미국 한인사회 독립운동 주도권을 탈취하는 동시에 미국 정부와 이승만의 관계를 이간시켰다. 이들은 이승만의 노



한미협의회가 임정승인을 촉구하기 위해 1944년 8월 29일 뉴욕의 에스토리아 호텔에 마련한 만찬회. 높은 자리의 왼쪽 끝에서 두 번째가 이원순의 부인 이 매리 여사. 한 사람 건너가 프란체스카 여사, 그리고 두 사람 건너가 이승만 박사이다.



신탁통치 반대 군중대회(1946.1). 그러나 좌익들은 신탁통치에 찬성하였다.

력으로 복원된 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를 무시하고 워싱턴에 별도의 사무실을 개설하여 이승만을 견제했다. 이들은 1945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창립총회에 이승만이 한민족대표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여 그 회의에 한민족 대표는 끝내 참석하지 못했다.

1945년 10월 이승만이 미국으로부터 귀국했을 때, 국내의 좌익세력은 이승만을 '독립조선의 위대한 지도자'로 크게 환영했다. 이승만이 독립을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좌·우·중도를 망라한 모든 정치세력이 참여하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만들자고 제안하자 공산당을 비롯한 모든 좌익세력도 그에 참여했다. 독촉중협에 참여한 좌익세력은 독촉중협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조선인민공화국의 주석 직을 미끼로 이승만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 이승만과 함께 독촉중협을 좌지우지하려 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독촉중협을 좌우를 망라한 민족통일전선 기구로 만들되, 그 주도권을 좌익이 장악하는 것은 저지하려 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독촉중협 내에서 이승만과 좌익은 갈등하게 되었다. 좌익은 이승만에게 조속히 인공 주석에 취임하라고 요구했다. 이승만은 인공 주석 취임을 공개적으로 사양했다. 이때부터 좌익은 이승만과 대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최종적으로 좌익은 독촉중협의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배정에 있어서 좌익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요구했다. 좌익을 제외한 다른 진영에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독촉중협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다수 의석 확보가 불가능해지자 좌익은 독촉중협에서 탈퇴했다.

독촉중협에서의 좌익의 탈퇴는 이승만과 좌익의 영원한 결별이었다. 이승만과 공산주의세력은 이후 철저한 적대관계 속에서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싸웠다.

이승만과 좌익 간의 갈등관계를 일별해보면, 그 갈등이 좌익의 이승만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시작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좌익이 단체 또는 한인공동체에서 이승만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성 지위 또는 주도권을 박탈하려는 데서 양 측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말이다. 통상 이승만의 완고한 반공 태도 때문에 좌익과 갈등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실상은 그와 반대였던 것이다. 오히려 이승만은 대의를 위해 좌익과 협조하려 한데 반해, 좌익은 자기들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이승만을 배척했던 것이다.



# 이승만의 미주(美洲)지역에서 독립운동방략과 독립운동

남정옥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우남(霧南) 이승만(李承晩, 1875-1965) 박사는 대한제국 말기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약 40년(1904-1945)을 미주지역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독립운동가였다. 그는 조선 선비의 기품을 이어 받은 한학자·문필가·용변가·저술가·미국 명문대학 박사학위 소지자·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주미외교위원장의 자격으로 미주지역에서 일제의 식민지가 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

이승만의 독립운동 무대는 주로 하와이와 미 본토였다. 이승만은 미주지역을 독립운동 무대로 하여 미국 대통령(시오도어 루스벨트·우드러 윌슨·프랭클린 루스벨트)을 비롯한 국무장관과 전쟁장관, 그리고 미국 행정부의 관리들에게 한국의 독립을 역설하거나 이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미국 내의 정치가, 언론인, 종교인, 교수 등 한국독립운동에 우호적인 친한 인사들을 결집하여 한국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승만은 독립운동기간 외교사절, 대한공화국(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및 주미외교위원장 등의 신분으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갔다. 그는 미국 각계각층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거나 미국 내 유력인사들로 친한그룹을 형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 정부나 의회에 한국 독립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게 했다. 그는 또 임시정부의 대표자격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일본 침략의 부당성을 국제

사회에 폭로하고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며 한국독립에 도움이 될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청하거나 미국 내 한국 독립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일제의 침략성을 폭로하고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담은 저술활동을 비롯하여 연설, 강연, 기고를 통해 한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이승만은 국제상황에 맞는 독립운동 전략을 융통성 있게 구사했다. 이는 한국의 정세와 일본의 움직임,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들의 향배를 주시하며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는 등 한국 독립의 호소, 동북아시아 연맹구축, 임시정부 승인, 한국인에 대한 무기지원 요청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그는 독립운동을 전개 하는데 있어 독립운동의 지침이 될 독립운동방략을 구상하고 이러한 토대위에서 국제상황에 맞는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제1급의 독립운동 외교가로서 탁월한 수완과 능력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미주지역에서 독립운동방략과 이에 따라 추진된 독립노선 및 독립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승만은 제1급의 독립운동 외교가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 그의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동양의 고전에 통달하고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석학으로서의 수준 높은 학식, 국제정세를 정확히 읽고 판단할 줄 아는 통찰력, 동포들

의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고자 채택한 실용적인 독립외교노선, 문필가·저술가·언론인으로서의 뛰어난 문장력, 외교관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외국어 구사 능력, 설득력 있는 언변술과 탁월한 조직력,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 끈질긴 집념과 결코 멈춤이 없는 제과식 추진력, 타고난 건강과 남달리 영민한 두뇌 등은 그를 최고의 독립운동 외교가로서 활동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했다. 특히 그는 임시정부의 대통령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시오도어 루스벨트·우드러 윌슨·프랭클린 루스벨트), 구한말 조선과 수교했던 국가, 국제연맹 총회의장, 그리고 일본 국왕과 정상급 외교를 펼쳤다.

둘째, 이승만의 미주지역에서의 독립운동방략과 독립외교는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길을 올바르게 제시하고 그대로 행동했다. “일본이 싫어하는 것은 반드시 하되, 일본이 좋아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지피지기에서 나온 독립운동방략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의 독립운동방략은 손자병법의 주도권 장악이나 베트남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베트남 전쟁영웅 보 응웬 지암의 ‘적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방식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3불전략(三不戰略)과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당시 미국은 이승만이 독립외교를 전개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미국은 국제정치의 중



심지로서 외교선전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 조성에 있어 일본의 간섭이나 방해받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세계 외교무대의 중심지로서 한국의 사정을 알리는데 적합하고, 또 일본의 직접적인 세력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만주나 시베리아에서처럼 일본 군경(軍警)의 박해를 받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었다. 특히 미국에는 이승만에 대한 비판세력도 있었지만 그들 도와주는 우호세력이 많이 있어 그의 독립운동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해방 후 이승만의 건국운동 뿐만 아니라 이승만 집권기 내내 미국 내의 친한 인사로 이승만과 한국을 위해 오랫동안 일해 왔다. 이들로는 올리버 박사를 비롯하여 굿펠로우, 윌리엄스, 스테거스 등이 있다.

셋째, 이승만은 국제정세의 흐름, 그 중에서도 미국 지도부의 판단을 정확히 읽고 행동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열강들에게 무장투쟁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연합국인 일본의 편을 들 수 있다는 정세판단은 타견이 아닐 수 없다. 이를 통해 전개한 그의 독립외교는 당시 국제상황으로 볼 때 적절한 노선이 아니었는가 싶다. 그렇지만 이승만은 반드시 일본과 미국이 충돌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위한 조치로 임시정부의 승인을 목표로 삼고 행동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조치를 미국으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후 한반도가 38도선으로 분단된 채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승만의 임시정부를 승인 받지 못한 것은 그의 실패가 아니라 미국의 임시정부 승인불허정책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실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이승만의 다각적인 독립외교는 태평양전쟁 중 연합국 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인정한 카이로 선언에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카이로 선언은 1943년

12월 1일 미·영·중 연합국 수뇌들이 모여 일본에 대한 처리문제를 발표한 것이었다. 카이로 선언을 기점으로 한국의 독립은 국제사회에서 기정사실로 확정된 이후 포츠담 선언에서 이 문제는 다시 확인되었고, 일본 패망 후 카이로 선언에 의해 한국 독립문제는 단순한 한국문제가 아닌 연합국 문제로 거론되었다. 이승만이 해방 후인 1946년 8월 14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카이로 공약」 이행을 요망하는 전문을 보낸 것만 봐도 한국의 독립에 카이로 선언이 미친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이승만은 독립운동 시기인 1942년에 대마도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이다. 대마도 반환에 대한 이승만의 요구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3차례(1948년 8월 18일, 1949년 1월 8일, 1949년 12월 31일)나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의 반환요구는 그 보다 훨씬 빠른 1942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1942년 11월 중국 외무차관(빅터후)과 그 해 12월 미국 국무장관(헐)에게 보낸 서신에서 대마도 반환을 요구했다. 따라서 이승만의 대마도 반환요구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뿌리가 깊고 그에 대한 확신과 증거자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및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이승만은 독립운동 기간뿐만 아니라 독립 이후 우리가 수립할 국가의 형태 및 건국 절차에 대해서도 미리 방향

을 제시했다. 그는 일제의 잔재를 없애고 법치질서를 확립하여 민주적 절차를 수립해 모든 성인 남녀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총선거를 통해 자유롭고 막강한 민주 한국을 수립함으로써 전후에 새롭게 형성될 세계에서 극동 평화의 강력한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광복 후 귀국하여 대한민국을 수립할 때 여기에서 한 치도 벗어남이 없이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임시정부를 승인해야 소련의 한국점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는데, 광복 후 이것은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그의 뛰어난 통찰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이승만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략가(智略家)이자 때가 오면 이를 실천할 줄 아는 심지(心志) 굳고 추진력이 강한 독립운동 외교가였다. 그는 또 일제강점기 민족최고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독립운동의 거인(巨人)이었다. 그의 독립운동방략이나 독립노선은 즉흥적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결단코 문약(文弱)에 흐르거나 유약(柔弱)하지도 않았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연합국에 의한 '대한민국 독립의 문' 이라고 할 수 있는 카이로 선언의 채택에 이승만의 외교적 역량과 노력이 투영될 개연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또 광복 후 소련의 한반도에서의 행보 및 우리의 건국과정과 정부형태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승만의 미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오하이오주 애쉬랜드에서 임정승인 촉구 운동을 벌이기 위해 모인 한미협의회 이사들. 왼쪽 끝으로부터 이승만, 한미협의회 애쉬랜드 지회장 메이머스 부인, 변호사 스테거스, 아메리칸대학 총장 폴 다글러스, 한국선교사 호머 헐벗, INS 통신사 기자 제이 윌리엄스.



#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의 상해 체류 활동

오영섭 |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연구교수



이승만(1875~1965)은 1919년 3·1운동 직후 민족적 여망에 따라 국내외 각지에 선포·수립된 여러 임시정부에서 수반급 지도자로 추대되었다. 이것은 그가 3·1운동 이전에 이미 국내외 독립운동세력들로부터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런 배경을 기반으로 이승만은 1919년 9월 한성·상해·노령지역의 임시정부를 망라하여 상해에 수립된 통합 대한민국임시정부(임정)의 임시대통령에 올랐다. 이후 1925년 3월 임시의정원의 탄핵으로 물러날 때까지 약 6년간 임정 대통령으로서 한국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따라서 1920년대 전반기에 이승만은 임정의 대통령으로서 한민족을 대표하는 최고통치자인 동시에 독립운동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1919년 9월 통합 임정 출범 이후 이승만은 반대파의 거센 지지와 지지세력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정 소재지인 상해에 부임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임정 출범 이전 상해로 가겠다는 종래의 입장을 바꾸어 미주와 원동 간의 역할분담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11월 3일 국무총리 이동휘를 비롯한 정부 각원들이 취임하자 19일자로 감축한다는 축하전보를 보내면서 그는 “遼東의 일은 총리가 알아서 하고 중대한 일만 나와 상의하며 미주지역의 일은 나에게 맡겨달라, 중요한 일이 생기면 임시정부와 상의하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구상에 따라 이승만은 미주에서 구미위원부를 중심으로 외교독립운동에 전념하며 전보와 서신을 통하여 임정을 원격 통치해나갔다.

5년 반 가량 상해임정의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이승만은 단 한 차례 상해를 방문하여 약 6개월간(1920.12.5~1921.5.28) 머물렀다. 그런데 일건 무의미한 장기체류 여행처럼 보이는 이승만의 상해 방문 기간에 한국독립운동의 지형과 방향을 뒤흔든 중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그 기간에 임정 내 문치파와 무단파의 노선투쟁이 깊어졌고, 반임정·반이승만세력의 임정 개조·타도 운동과 위임통치청원 비관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으며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이승만과 임정지지세력의 임정유지 활동이 활발히 벌어졌다. 따라서 이승만의 상해 체류 기간은 이승만과 임정의 대립관계, 임정 내외의 반임정·반이승만세력의 활동상, 이승만의 임정 개선책 및 유지활동 등의 여러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까지 이승만의 상해 체류 활동의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즉, 이승만이 대정략과 대자금을 가지지 못하고 상해에 부임하여 활동하다가 임정



1921년 4월, 중국인으로 변장한 이승만 박사.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취임을 위해 호놀룰루에서 상해로 밀항할 때 일본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입었던 중국인 옷이다.



이승만의 상해 체류기간은 이승만과 임정의 대립관계, 임정 내외의 반임정·반이승만세력의 활동상, 이승만의 임정개선책 및 유지활동 등의 여러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의 난맥상을 해소하지 못했으며, 임정 내외에서 반임정·반이승만 운동이 본격화하고 적대세력이 테러위협을 가하자, 급기야 도망치다시피 상해를 떠나 하와이로 돌아감으로써 결과적으로 임정의 분란과 분열을 촉진시켰다는 부정적 평가가 일색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첫째, 임정의 침체와 분열 원인을 임정의 태생적·고질적 약점인 재정곤란·노선차이·지방열·조직의 비효율성 등에서 찾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 이승만 개인에게 돌리는 문제점을 남겼다. 둘째, 이승만이 상해에 머무는 동안 임정 유지를 위해 또 독립운동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목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파악하려는 문제점을 남겼다. 따라서 여기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승만의 상해 부임 경위, 임정 통치 구상 내지 전략, 임정 유지를 위한 여러 방안 강구 및 대응책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1920년대 전반 이승만이 상해에서 벌인 독립운동의 실상을 구명해 보려 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이승만은 당초 미주와 상해가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생각했다. 미주는 전세계의 영향력을 갖고있는 미국과 유엔 등을 통한 외교채널을 확보하고 상해에서는 기타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상해에서 이루어지는 일 중 중요문제는 미국과 협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분담을 깨고 1919년 9월 이박사가 상해로 간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첫째는 시대적 배경의 변화이다.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 미국의회의원단이 동아시아를 방문하게 됐기 때문이다. 동아시아를 방문하는 의원단이 한국까지 방문하게 되자 이승만은 상해행을 결정하게 됐다.

둘째는 상해임시의정원이 이박사의 상해부임을 강요한 점도 하나의 이유였다.

임정내 좌파세력과 안창호를 비롯한 서북파들은 미주에서 자금력을 확보하고있는 이박사를 견제하기위해 이승만을 미주에



1920년 12월 28일 상해교민단이 베푼 환영회에 참석한 '임시대통령' 이승만 박사(가운데 화환을 두른 이). 왼쪽 끝으로부터 손정도, 이동령, 이시영, 이동휘, 이승만, 안창호, 박은식, 신규식.

서 상해로 불러들이는 책략을 내놓았다. 이는 그동안 임시정부의 주요 자금줄을 차지하고있는 미주지역의 자금을 이승만이 독차지해왔기 때문에 이승만을 상해에 붙들어 댄으로써 미주지역 자금줄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속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당시 상해임정은 재정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였다.

이박사는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임정의 재정상태를 살폈는데 이때 이승만의 후원자 중의 한분은 "임정은 자체내 혼란으로 크게 기대할 것이 없으니 큰 돈을 내놓지말고 적당히 유지만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귀뜸을 했고 이승만은 이 후원자의 언질에따라 임정에 당초 약속했던 전폭적인 자금지원을 보류했다.

이렇게되자 이동휘를 중심으로 좌파가 주도하는 임정관계자들은 상해 도착과 동시에 재정지원을 약속한 이박사를 다루어 비난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박사가 강대국들이 보장하는 위임통치안을 내놓자 이들은 '매국행위' 라며 이박사를 몰아세웠다. 그러나 이박사의 위임통치 제안은 '한국의 독립을 강대국들이 문서로 보장한다는 조건아래 나온 것이어서 해방후에 나온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신탁통치안과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있다.

이승만은 이동휘를 비롯한 반대파들과 화해를 하기위해 화합내각을 구성하려고도 했으나 반대파들이 참여하지 않아 결국에는 자신을 지지하는 기호파들로 내각을 구성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박사는 서북파 등의 압박에다 일부 젊은층들의 살해위협까지 나오자 결국 상해 임정에 회의를 느껴 미국으로 돌아간다.

그가 미국으로 돌아간 또 다른 이유로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이승만이 자리를 비운사이 미주지역내의 조직이 와해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내 이승만 추종세력들은 좌파와 서북파들이 미주지역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며 위협을 가하자 이승만대통령에게 빨리 돌아와 줄 것을 여러차례 요구했다.



# 이승만기념사업회 역사적 4.19묘지 참배 무산



사단법인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는 지난 4월19일 서울 수유리 4.19기념탑을 찾아 헌화하고 참배하려 했으나 일부 4.19관련단체 관계자들의 물리적 저지로 참배를 거부당했다.

기념사업회는 이날 오전 참배를 위해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인 이인수 부회장을 비롯 30여명의 관계자들이 버스를 타고 4.19묘지 주차장에 도착했으나 기다리고 있던 4.19관계자들이 참배를 거부하며 탑승 차량과 사업회 관계자들을 묘역 밖으로 밀어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이인수 박사는 미리 준비한 4.19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으나 이박사를 수행하던 김일주 사무총장은 허리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인수 부회장은 성명서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과 4.19 학생들의 민주정신은 둘이 아닌 하나” 라고 지적하고 “당시 정부의 잘못으로 희생된 학생들과 그 유족들에 머리 숙여 조의를 표한다” 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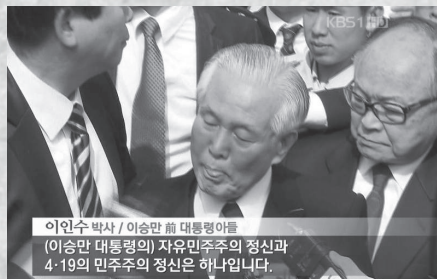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을 계승하려는 기념사업회와 이승만 대통령의 유족대표가 공식으로 4.19희생자들에게 조의를 밝힌 것은 60년 사태후 50년 만에 처음 있는 역사적인 일이다.

이인수 박사는 성명서에서 “그 동안 희생자에 대한 사과와 묘역 참배를 하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치 않아 늦어졌

다” 고 설명하고 “앞으로 희생자 유족들과 힘을 모아 새로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기념사업회는 취재차 4.19묘역을 찾았던 수많은 보도진의 요청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 이화장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인수 부회장은 “우리의 진정한 사과와 참배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고 전제하고 “오늘 우리의 참배 결정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심정을 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4.19관계자들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유일통신사인 연합뉴스가 17일 기념사업회의 4.19기념탑 참배소식을 보도한 데 이어 국내 주요신문들은 18일 자에서 이 소식을 일제히 1면 또는 사회면 톱기사로 보도했고 방송들도 다투어 주요뉴스로 보도하는 등 20일까지 국내언론에는 관련 기사가 줄을 이었다.

특히 모든 언론들은 기사와 논설, 논평, 칼럼 등을 통해 기념사업회의 사과성명 발표와 참배 결정이 역사적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있는 태도이며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의미 있는 일” 이라고 입을 모으고 이를 저지한 4.19단체 관계자들을 일제히 비난했다.



이인수 박사 / 이승만 전 대통령 아들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4·19의 민주주의 정신은 하나입니다.)



김일주 이승만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이승만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나라를 세운 분이십니다.



# 성명서

## 4.19 참배 결정 성명서

3.15부정선거에 항의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젊은 학생들이 분연히 일어선 4.19혁명이 이 땅에 일어난 지도 올해로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당시 학생들이 흘린 피의 댓가로 정치적으로 세계 어느 선진국 못지않은 민주화를 이루었으며 경제적으로는 G20 정상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할 정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성장은 60여년 전 이승만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세우실 때 주창하신 건국이념과 4.19 당시 학생들의 애국충정을 우리 후손들이 잘 받들어 실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는 '이승만대통령의 건국정신과 4.19 당시 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은 하나' 라 생각하고 당시 정부의 잘못으로 인해 희생된 학생들과 그 유족들에게 머리숙여 조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4.19유족회 등 관련단체와 힘을 모아 당시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발전에 함께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우리 이승만대통령기념사업회와 유족대표들은 오는 4월19일 수유리 4.19묘역을 방문해 헌화하고 참배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4.19희생 유족들에게 다시한번 잘못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너그러운 이해와 함께 본 사업회에 대한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임원과 유족일동-

## 4.19 묘역 참배 무산에 대한 성명서

한마디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와 유족들이 51년만에 내린 역사적인 사죄 결정을 4.19 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4.19 민주묘역을 방문해 참배하고 헌화하려는 우리를 4.19단체 관계자들이 힘으로 저지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시 정부의 잘못으로 어린 자식이나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4.19혁명이 있는지도 벌써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당시의 주역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제 이대통령의 아들인 저도 이미 80을 넘었습니다.

더 늦기전에,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이대통령의 뜻을 전하며 화해를 해야한다는 저와 기념사업회의 간곡한 뜻을 그 분들과 국민 여러분이 사실 그대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와 기념사업회는 오늘 저분들이 우리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면 머지않아 우리의 진심을 받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념사업회와 4.19관련단체가 하나가 되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세우신 이승만대통령의 뜻 이자 부정선거에 항의하다 숨진 4.19영령들의 송고한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대통령의 건국정신과 4.19정신은 하나이기에 다같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첩경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4.19묘역을 방문한 이유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회장 이기수 및 유족일동-

## 4.19세대와 이승만의 화해

### 박보균의 세상탐사



박보균 편집인

이승만은 현대사의 출발점  
 종북좌파는 4·19 활용해 폄하  
 4·19세대, 역사의 족쇄풀고  
 젊은 세대 상상력 차단 말아야

이승만은 서사시(敍事詩)다. 장엄하고 처절한 삶이다. 영광과 오욕의 갈림은 극명하다. 그의 구십 평생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압축이다. 곡절은 긴박하고 반전은 극적인 드라마다. 대다수 한국인은 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알아도 일그러진 부분이다.

말년의 과오 때문이다. 독재와 부정선거다. 4.19 혁명은 그를 퇴장시켰다. 그 오점이 그에 대한 평판과 선입관으로 거세게 자리했다. 뒤틀린 이미지는 그의 생애를 추적하려는 지적 호기심을 떨어뜨렸다. 그의 리더십에 대한 흥미를 감퇴시켰다.

이승만의 과(過)는 분명하다. 공(功)은 찬연하다. 그는 건국 대통령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나라의 비전과 틀을 잡았다. 그 선택은 위대했다. 북쪽 노선으로 갔으면 집단적 배고픔과 세습 독재에 허덕였을 것이다. 6.25전쟁의 정리를 놓고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과 충돌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거센 투쟁의 성취다. 미

국은 그를 쿠데타로 제거하려 했다. 동맹 조약의 군사·경제 지원은 국가 재건의 기반이었다.

4월은 이승만에게 잔인하다. 그의 거대한 삶은 상처투성이가 되어간다. 50여년이 지났다. 4·19세대는 나이 칠십을 넘겼다. 그들의 이승만 평가와 시각은 어떤 모습일까. 1960년 4·19 전날 고려대 시위가 있었다. 그날 밤 학생들은 정치 강패들한테 기습을 당했다. 그 유행은 다음 날 모든 대학의 쫓기로 이어졌다. 박찬세(당시 고려대 4년)씨는 압도적 중심인물이었다. 4.18 선언문은 그의 작품이다.

“대학은 반항과 자유의 표상이다. 이제 질식할 듯한 기성독재의 최후적 발악은 . . . 역류하는 피의 분노를 억제할 수 없다.” 명문이다. 그 시대 대학의 감성, 저항의 대의를 명쾌하게 표출했다. 그와 대화를 나눴다.

- 4.19가 다가오면 이승만은 왜소해진다. 과오가 집중 부각된다.

“불공정하다. 이승만의 공과를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한다. 중국 현대사를 보라. 덩샤오핑(鄧小平·등소평)은 문화혁명 시절 마오쩌둥(毛澤東·모택동)에게 두 번 숙청됐다. 하지만 덩은 마오의 공격을 먼저 인정했다. 온고지신 지혜다. 이승만은 현대사의 출발점이다. 그를 제대로 평가해야 현대사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완성된다. 말년의 독재와 실패는 그의 생애 중 일부다.”

- 4·19와 이승만은 대척점에서 존재한다. 지금의 젊은 세대가 이승만에게 다가가기 어렵다.

“이승만은 4월 혁명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학생들의 해야 요구를 받아들였다. 시대의 흐름을 수용했다. 시위 부상자들의 병실을 찾았다. ‘불의(不義)에 분노하지 않으면 젊은이가 아니다’

라고 그들을 위문했다. 지금 중동 이슬람의 시민 시위 과정과 비교해봐라. 50여년 전 이승만은 달랐다.”

저항은 이승만의 젊은 시절 장면이다. 잘생긴 얼굴에다 개화파로의 지적 단련,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분개와 좌절, 조선 왕조의 무능과 부패 규탄, 종신형 선고, 고종의 대미 밀사, 그리고 독립투쟁, 일본이 그의 목에 건 30만 달러의 현상금, 시체를 넣은 관 틈에 숨어 상하이로 밀항. 치열한 삶이다. 거기에 얽힌 긴박한 드라마는 예술적 감수성을 자극한다.

4.19 혁명은 민주화의 상징이다. 위대한 성취다. 그 업적을 기릴수록 이승만은 초라해졌다. 그 상황을 교묘히 악용하는 세력이 있다. 3류 종북 좌파들이다. 그들은 해방공간의 역사·이념의 대결을 김일성 승리로 귀결시킨다.

이를 위해 이승만에 대한 경멸감을 주입한다. 인물에 대한 자학적(自虐的) 사고(思考) 습관을 배양한다. 그들은 이승만의 친일과 기용 논란을 키우면서 독도의 평화선 선포 결단을 축소한다. 이승만과 김구 사이도 이간질한다. 그 세력은 4월 혁명을 이승만 폄하에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다.

4.19 주역들은 이승만을 역사의 족쇄에서 풀어줘야 한다. 4.19 세대가 이승만에 대한 평가를 독점할 수 없다. 이승만 생애에 대한 젊은 세대의 역사적 상상력을 차단해선 안 된다. 다수의 젊은 세대는 균형 감각을 가지려 한다.

이기택(민주수석부의장)씨는 “4.19 혁명의 진정한 완성은 북한의 민주화”라고 역설한다. 그는 4.19의 간판이다.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도 이승만의 성취와 공존해야 한다. 4.19와 이승만의 화해는 현대사의 성숙이다.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한 역사 인식의 혁신이다.

# “간악한 黑心이라 해도 좋다”

## 최보식 칼럼



최보식 선임기자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이승만 동상을 세우면  
李대통령 최고 업적 될 것  
더이상 세상 사람들은  
“철학이 없다”고  
비웃지 않을 것

이인수 박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하와이 망명 시절에 양자로 입적됐다. 전주 이씨(李氏) 문중의 결정이었다. 대학을 졸업했고, 영어를 할 줄 알고, 미혼이고, 좋은 집안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맞는 사람이었다. 그 운명을 피할 도리가 없었다.

양자로 입적된 그는 ‘텅 빈’ 이화장(梨花莊)으로 옮겨와 살았다. 그 뒤 하와이로 이승만을 찾아갔을 때, 첫 상봉의 느낌을 이렇게 전했다. “사람 운명이라는 게 있는지, 우리는 몇 십년 함께 살아온 부자지간 같았다.” 당시 30세였던 그도 이제 팔순 노인이 됐다.

“아버님은 쫓겨났음에도 ‘학생들이 정말 장해. 청년들의 의기가 없으면 나라가 망해’ 라고 했다. 숨진 학생과 유족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아버님 흉중에 있던 그런 뜻을 전하고 싶었다.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이제 반세기가 지났으니 더 늦출 순 없었다.” 그의 ‘4.19묘역 참배’는 불발로

끝났다. 묘역 바깥으로 그를 떠밀어낸 4.19 세대도 대부분 백발(白髮)노인이었다. 독재자를 몰아낸 젊은 학도(學徒)들도 세월 속에 늙어가는 마찬가지로였다. 하지만 세월이 늘 인간의 의식을 성숙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날 현장은 우리가 어릴 적에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어왔던 ‘용서하는 게 이기는 것’이라는 훈계가 비현실적임을 보여주었다. 4.19 단체가 “자꾸 이러면 이승만의 과오에 대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했을 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다. 이승만의 과오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좌파 진영에서 끊임없이 선전해 온 효과다.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한 ‘분단의 원흉’, 평생 독립운동을 해왔으나 정부조직에 친일파를 등용한 ‘친일파’, 미국이 감당하기 어려워 제거할 계획까지 세운 인물이었지만 ‘미제(美帝)의 앞잡이’, 3선 개헌을 시도한 독재자... 선거 때마다 딱 벌떼와 백골단이 설쳤고, 4.19 당일에만 경찰의 발사로 186명이 숨졌다.

이승만이 하야한 뒤 시민들은 탑골공원에 있던 동상을 새끼에 묶어 끌고 다녔다. 남산공원의 동상은 중장비로 잘라냈다. 그는 하와이에 망명한 뒤로 살아서 고국 땅을 다시 밟지 못했다. 1965년 하와이의 한 요양원에서 숨을 거뒀을 때, 국내 신문에서는 ‘서거(逝去)’가 아닌 ‘이박사 운명(殞命)’으로 썼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한때 그를 몰아낸 시민들도 거리로 몰려나와 울었다. 국립묘지에 묻히긴 했으나 1970년까지 묘석이 없었다. 그런 비참한 말로(末路)를 맞았던 그가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고 정부를 세웠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이뤄낸 우리 성

공의 역사에 그가 주춧돌을 놓은 것이다. 혼란한 해방공간에서 그의 존재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김씨 부자의 세습독재 치하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승만의 뒤를 이은 후배 대통령들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우호적인 정치세력도 없었다. 어쩌면 “고조선·고구려·통일신라도 대한민국만큼 위대하지 않았다. 오늘의 모든 성취는 이승만 대통령으로 비롯됐다”고 평가한 운동권 출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유일한지 모른다. 이승만은 너무 오래 잊혔거나 어둠 속에 있었다. 4.19 이후 끌어내려진 동상은 현재까지도 서울 명륜동의 한 개인 집 마당에 방치돼 있다. 나는 3년 전 ‘이승만 동상을 찾아서’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지만, 그 뒤에도 바뀐 것은 없다.

이번 이인수 박사의 4.19 묘역 참배를 놓고, 일부 4.19 세대들은 “이는 광화문에 이승만 동상을 세우려는 간악한 흑심(黑心)”이라고 비판했다. 간악한 흑심이라고 해도 좋다.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건국대통령의 동상을 볼 수 있기를 원한다.

이승만은 더 이상 4.19 세대의 경쟁자가 아니다. 그의 건국이 있었기에 역설적으로 4.19 세대의 ‘승리’도 있었다. 그는 순순히 물러남으로써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학습하게 했다. 이승만이나 4.19 세대나 모두가 승자였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어떻게 굴러왔는지를 안다면, 젊은 친구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르쳐야 할 소명을 느낀다면, 우리 사회의 어른인 4.19 세대가 이승만 동상 건립에 앞장설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추진하면 ‘임기내 최고 업적’으로 남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대통령에 대해 “철학과 역사적 사명감이 없다”고 비웃지 않게 될 것이다.

## 이승만 대통령의 발자취 (2)

# 부산 임시수도 거리 및 임시수도 기념관




부산시 서구 부민동에 있는 임시수도거리는 국내에서 이화장 다음으로 이승만 박사의 발자취를 많이 느낄 수 있는 장소다. 부산시가 부산의 상징거리 중 하나로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 중인 이곳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길거리에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져 있던 곳이다. 그러나 서울 남부지역에서 석조물 제작의 1인자로 꼽히는 문성권 작가가 제작한 이승만 동상은 최근 정채 모를 괴한들의 페인트 공격을 받아 현재 임시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8월18일부터 1953년 8월15일까지 부산이 대한민국의 임시수도이던 시절 대통령 관저로 사용됐던 이 임시수도기념관은 우선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아담한 본관 기와집이 눈길을 끈다. 이 건물은 1926년 8월10일 준공 이후 경남도지사의 관사로 사용돼 오다 부산이 임시수도가 되면서 3년간 이승만 대통령의 관저로 사용됐고 전쟁 후 다시 경남지사 관사로 복귀했다. 그러나 1983년 경남도청이 창원으로 옮겨가면서 이듬해인 84년 임시수도기념관으로 재탄생했다. 2000년 이후 이 기념관은 여러 차례의 복원공사와 전시보강작업을 벌여 현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부산시 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부산시는 현재 이 기념관 옆 주차장부지 등에 현대식 건물을 지어 이승만 박물관으로 확장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기념관은 1층과 2층으로 나뉘어 있는데 1층에는 응접실과 서재 내실, 거실, 식당, 부엌, 욕실 등이 있고 2층에는 전시실과 회상의 방이 있다. 서재에는 밀랍인형으로 만든 이박사의 집무모습이 그대로 잘 묘사돼 있다. 밀랍인형은 멀리서 보면 마치 이 대통령이 살아 돌아와 지금도 자리에서 집무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한다. 기념관을 들어서면 우측에 응접실이 있는데 이곳은 임시정부 당시 대한민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정치와 외교 군사 등 모든 것을 결정하던 역사적인 곳이다. 응접실 바로 옆에 있는 집무실에는 당시에 사용되던 병풍과 책상, 전화 등이 당시대로 놓여있고 이승만 박사의 밀랍인형이 그대로 있어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1층 우측에는 증언의 방도 마련되어 당시 특공대원으로 전쟁에 참가했던 이정숙 할머니의 증언이 육성으로 나오고 있다. 한편 2층에는 당시 부산의 사회상황과 전쟁 상황 등을 잘 보여주는 전시실이 자리하고 있다.

이밖에 본관 뒤편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휴식을 취하거나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던 아름다운 후원이 있고 그 뒤의 별채는 현재 임시수도와 관련된 영상들을 볼 수 있는 영상실이 마련돼 있다. 



# 청빈과 겸손의 삶을 살며

李仁秀 | 정치학박사

1962년 2월초부터 나는 하와이대학에 다녔다. “공부를 해야 할 젊은 애가 집에만 있어 되느냐”고 하시는 아버님의 나의 교육에 대한 관심에 어머니는 전에 아버님과 약속하신 일도 있어 나더러 우선 하와이대학에 가보라고 하셨다. 집안사정으로 보아서는 무엇보다 아버님의 병환을 살피드려야 하고 어머니의 힘겨운 살림을 도와야 할 일이 많았지만 아버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셨다. 마침 모교인 고려대학교에 신청한 졸업증서와 성적표가 도착해서 입학의 준비는 되어있었다. 학교에 가서 알아보니 대학원 경영학과 입학에 문제는 없었으나 곧 한 달 후면 아버님을 모시고 귀국을 해야 할 테니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와 상의하기로 하였다.

어머님도 아버님 귀국 시에는 내가 꼭 함께 가야한다고 하셨다. 이제 아들 겸 절실한 비서가 생겼는데 이 어려운 때 형편이 꺾일 때까지 집안일을 살피야하지 않겠느냐고 너의 역할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애원하듯 하시는 말씀에 나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1934년 아버님과 결혼하신 후 독립운동과 건국투쟁기, 6.25전란과 경제부흥이라는 연속된 고난속의 고달픈 세월을 한 사람의 육친(肉親)도 없는 미국과 한국인사회에서 살아오신 오스트리아 태생 어머니의 그 인간적인 고독을 생각해서였다. 경무대에서도 비서들은 있었으나 사생활을

살피드릴 비서는 없었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대학예비과정인 고급영어과정을 청강하기로 하였다. 정규과정의 등록금도 없고 언제 그만두어도 좋았다. 아버님은 내가 학교에서 공부한다는 것에 만족하셨고 아침에 등교한다고 인사를 드리면 잘 다녀오라고 하셨다. 하와이대학에는 일본인 유학생이 그렇게도 많았다. 한국의 6·25전쟁으로 생긴 특수경기 덕분에 경제가 살아난 일본의 활기와 발전상을 이 학생들에게 보는 것 같았다. 태평양전쟁 비상시국(非常時局)에서 일제(日帝)가 신경질적으로 외치던 귀축미영(鬼畜米英)이니 미영격멸(米英擊滅)같은 구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새 세대의 모습이었다.

어느 날 귀가해 보니 어머니께서 한국의 대학교수가 전화로 너를 찾더라는 이야기를 하셨다. 오후에 다시 나에게 온 전화를 받아보니 고대 재학시 나에게 상업영어를 가르친 김행권(金行權)교수였다. 미국유학을 마치고 귀국 중 하와이에 들러 나의 안부를 물으시고 이대통령께 존경과 사랑의 인사말씀을 올려달라는 부탁이었다.

집에 오면 어머니와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았다. 한 달 후면 부모님을 모시고 이 집을 떠나 귀국해야 할 것이니 여러 가지 정리할 것이 있었다. 1960년 5월 29일 부모님이 3개월 휴양차 이곳에 오셔서 처음 가네오에 해변가 월·최의 별장에 계셨으



나 국내의 정국이 급변해 언제 귀국하실지 모르게 되자 동지회가 주동이 되어 12월에 호놀룰루시 매키키2033번지의 거처를 마련해 드리고 친근한 교포들이 가구를 가져와 살림을 차려드렸다. 그래서 가구에 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어머니가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집을 떠나면 가구마다 그 주인에 통지하여 돌려주도록 최백렬씨와 오중정씨에게 부탁을 하셨다. 고가구점을 하는 김창수씨가 제일 많이 가구를 가져왔는데 폐기처분할 것도 있었다. 그 흔한 텔레비전도 없이 사셨으니 귀중한 가구란 하나도 없었다. 취사도구와 기물은 오중정씨가 인수해 가기로 하였다.

나는 그동안에 쌓인 한국에서 온 국한문 우편물을 처리하였다. 대부분 황규면(黃圭冕)비서와 한학자(漢學者) 신희렬(辛鎬烈)씨로부터 온 것인데 이것들은 우남이 한성감옥에서 쓴 한시를 모아 체역집(替役集)을 출판하는 것과 관계된 문건으로 이대통령 하야 전에 출판하려던 것이었다. 이 체역집은 1961년 4월 서울에서 출판되었는데 민주당 정권 아래서 많은 애로를 겪었다.

집에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일요일이면 최백렬씨가 차를 가지고 와서 아버님과 우리를 태우고 교회로 가서 예배가 끝나면 점심을 대접하였다. 최씨의 아버님을 모시는 정성은 참으로 눈물겨운 일이 많았다. 아버님은 최씨를 아들같이 사랑하셨고 최씨는 KCI(한인기독교학원)의 스승인 아버님을 공경하고 무슨 일이건 시간을 불문하고 두 분을 도왔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제 간의 정의(情義)였다.

이 무렵부터 아버님의 건강이 많이 쇠하여 갔다. 그러나 이와 반비례로 귀국의 의지는 더 강해지시는 것이었다. 아버님은 어머니와 내가 귀국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내심 좋아하고 계셨지만 왜 서두르지 않느냐고 재촉하셨다. 하루는 어머니가 시장에 가시는데 같이 나가서 이발을 하시자고 외출을 권하였더니 함부로 돈을 쓰면 한국에 못 간다고 거절을 하셨다. 그리고 계속 이발소에 가려고 하시지 않아 머리털이 보기 싫게 되자 어머니는 최백렬씨에 이발가위와 간단한 도구를 구해오라고 하시어 보자기를 아버님의 목에 둘러드리고 손수 이발을 해드렸다. 그 솜씨를 보고 놀라는 나에게 어머니는 전에도 해드린 일이 있다고 하셨다. 아버님은 대단히 만족한 표정이셨다.

출발일자를 3월 17일로 잡고 어떻게 해서든 아버님의 마지막 소원인 귀국을 이루게 해드리려고 어머니와 나는 이 일을 조용히 추진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이일을 외부에 알리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

지 않고 다만 최백렬, 오중정, 윌·최, 제씨와 김학성씨 내의 등만 알게 하고 우리를 돕게 하였다. 아버님이 입고가실 옷과 모자, 아직도 날씨가 차가울 서울에서 입으실 외투와 내의 등도 최백렬씨의 배려로 어렵지 않게 구해서 트렁크도 마련하여 짐을 챙겼다.

사실상 어머니나 나는 마음이 불안하였다. 무엇보다 민주당 대통령이 가재일체를 강제로 반출해간 후 이화장이 종이 한 장 없는 빈집이라는 것과 난방이 어려운 사정, 그리고 전직대통령에 대해 아무런 예우조치가 없는(예우법은 1969년에 만들어졌다.) 상태에서 생활비 마련의 문제 등 어머니와 나만이 알고 있는 걱정거리였다. 그래서 서울에도 착하면 우선 어느 호텔에서 집이 수리될 때까지 계시기로 하여 황비서에게 호텔을 구해보라고 하셨다. 사실 어머니는 이렇게 모험과 같은 계획을 하실 분이 아니었지만 이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풀어드리겠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결심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박정희정부의 진의를 알 수가 없었다. 호놀룰루시 한국영사관의 김세원(金世源)총영사는 우리의 동태를 항상 보고하고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이승만 박사의 귀국문제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미·일이 모두 주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였다.

‘사과성명이라도 있어야’ 라는 국내보도에 나는 반대하였지만 어머니는 이것을 만들게 하여 발표하셨으니 그만큼 이것으로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져보려고 하신 것이다. 세 사람의 비행기표가 마련이 되고 여행준비도 끝난 것을 아시고 아버님은 어린애같이 기뻐하셨다. 나는 16일 학교에 가서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교수와 몇몇 친구를 만나 작별의 인사를 하고 돌아왔다.



# 이재형 전 국회의장을 기리며



이재형 대한언론인회

이 글은 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이재형 이사가 윤경(雲耕) 이재형 전 국회의장의 서거 19주기에 즈음하여 쓴 것이다. 윤경선생은 대한민국 제헌의원으로 당시 이승만 제헌의장을 도와 대한민국 건국의 큰 공을 세웠다.

사랑하는 윤경 이재형 선생님! 오색 꽃 향기 그윽하고 질푸른 잎새에 산새는 노래하며 싱그러운 바람이 일렁이는 5월의 산하는 마냥 아름답기만 합니다.

오늘은 신묘년 5월 14일(음력 4월 12일), 대한민국 헌정사의 산증인이셨던 윤경선생께서 유명을 달리하신지 19주기를 맞이하여 선생의 유택을 다시 찾으니 실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윤경선생은 젊어서 구름발을 갈아 청운의 꿈을 가꾸고, 나이가 들어서 논밭을 기경하여 곡식과 수목을 키우고, 물을 담아 고기를 키우시던 농부요 선비요, 요산요수 인생을 즐기시던 풍류객이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인자(仁者)는 요산(樂山)하고 지자(智者)는 요수(樂水)라 했듯이 산과 벗하여 즐기는 어짐이요, 물을 다스려 유익하게 쓰는 지혜로움이 선생의 품모요 체취였습니다. “정치는 종합예술이요, 오케스트라이다. 그러므로 풍류와 해학이 있고 기쁨과 웃음이 깃든 정치라야 국민의 사랑과 호응을 받는다” 는 말씀은 큰 정치가다운 윤경이 남긴 명언이기도 합니다. 유머와 웃음이 딱딱한 정치마당을 부드럽게 만들고 재치있는 덕담이 어색한 분위기를 슬기롭게 넘기는 양념이 된다는 뜻인가 봅니다.

나는 작년이 맘때 이 자리에서 2010년 어린이날에 우리 곁을 떠난 향년 83세의 국민가수 백설희(白雪姬, 본명 김희숙)의 ‘봄날은 간다’ 노랫말을 읊은 기억이 되살아 납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웃고름 씹으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 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한 송이 꽃을 바치는 것보다 이 노래가사 한 마디가 윤경 선생의 마음문을 열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다시 한번 읊어 보았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윤경선생은 1914년 11월 7일 경기도 시흥에서 이규응(李圭應)공과 남원양씨(南原梁氏)의 9남매중 장남으로 태어나시고 서울 사직동 사저에 사시다가 1992년 1월 30일 향년 78세를 일기로 영면,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1938년 24살에 일본 주오(中央)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시고 귀국, 금융조합 이사, 사업부장 등으로 일하시다가 1948년 5·10 선거에 출마·당선되어 34세로 제헌국회에 진출하심으로써 정치인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동안 초대 2대 4대 5대 7대 11대 12대에 이르기까지 7선 국회의원의 관록을 쌓으셨으며, 1952년 38세로 최연소 상공부장관, 1960년 46세로 국회 부의장, 1985년부터 4년간 국회의장직을 역임하는 정치지도자의 관록을 쌓으셨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정계의 신기록이기도 했습니다.


윤경의 정치적 발자취는 자유당·민주당·민중당·신한당·신민당 및 민주정의당에 차례차례 새겨졌으며 그때마다 갈등과 대립의 조정자로서, 반목과 분열을 단결과 일치로 묶어내는 화합자로서, 정치력과 리더십을 한껏 발휘하여 세상 사람의 박수 갈채와 존경을 받은 지도자요, 애국가였습니다.

한·일 의원연맹 회장, 한·일 친선협회 회장, 국정자문위원, 민주정의당의 대표위원, 총재, 상임고문 등 정치적 직함은 차라리 부수적인 것이었으며, 윤경이 가장 애정을 가지고 열성을 쏟았던 일자리는 ‘전주 이씨(李氏)대동종약원’ 이사장이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의 왕통과 억불숭유(抑佛崇儒)·송조돈종(崇祖敦宗)의 전통을 이어온 조상들의 궁지와 전통을 잘 지키고 계승하겠다는 사명감과 집념의 표출이었습니다.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윤경선생님처럼 다복한 행운아는 이 세상에 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슬하에 두신 4남 4녀 8남매는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잘 자라서 나라와 겨레에 나름대로 큰 보탬이 된 줄로 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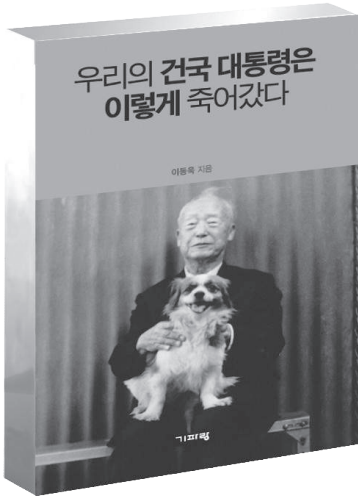
큰 아들 홍용박사는 농학전공의 학자로서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둘째 두용 회장, 셋째 철용 회장, 넷째 인용 회장은 각자의 영역에서 특색있는 기업을 일궈낸 대림그룹의 주춧돌들입니다. 재단법인 윤경재단을 여러해 이끌어 온 외우 송파 이재연 회장은 석달 전 8순 나이를 계기로 배성동 박사에게 재단 이사장직을 물려줬으며, 막내 이인용 회장과 김용태 사무총장이 20여 회 이어온 ‘사랑방 좌담회’ 개최 등 재단의 실무를 뒷바라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말없이 빙긋이 웃으시던 선생의 매력적인 미소가 새삼스럽습니다. 따사roi 껴안은 포용력이 아쉽습니다. 흔들림없는 결단력이 새롭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정치가 흔들릴수록 선생의 정치적 리더십이 간절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찍이 윤경선생의 정치적 업적과 유덕을 기려 국민훈장 무궁화장과 수교훈장 광화대장을 드려서 이를 위로·현창해 주었습니다.

중용(中庸)과 정도(正道), 그리고 진리와 정의가 숨쉬는 세상이라야 전교조(全敎組)와 중북·좌파·반미세력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틀을 굳건히 다지는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습니다. 선생이 두고 간 것에서는 미련이 남지만, 남기고 간 것에서는 사랑만이 깃들어 있습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시옵소서. 

# 우리의 건국 대통령은 이렇게 죽어갔다

- 5년 2개월 동안의 '눈물의 기록' -



이동욱 지음 | 값 8,500원 | 기파랑

**\* 저자 약력**

1959년 부산 출생. 서강대학 물리학과 졸업. 동 대학 정치학 석사. 조선일보사 월간조선 기자. 한국갤럽 전문위원 역임. 현재 선거 컨설턴트 및 아동문학가로 활동하면서 대필작가로도 일하고 있음. 저서로 장편 동화 『맑은 공기로 숨쉬고 싶어요』와 『이기는 선거와 현장조사』 등이 있다.

**이 책은.....**

건국대통령 이승만은 4·19가 일어나자 학생들의 정의감을 크게 칭찬한 뒤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났다. 그 후 한 달여 사저 이화장에서 지낸 그는 1960년 5월 29일, 하와이로 떠난다. 이승만으로서는 부인 프란체스카와 함께 '잠깐 다니러 간 여행'이었으나, 언론에서는 이를 '망명'이라 못 박았다. 이승만은 한시도 귀향의 꿈을 버리지 않고 타의에 의한 하와이 생활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그리도 돌아오고 싶어 하던 조국 땅에 내렸다.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의 애도 속에 동작동 국립묘지에 잠들었다.

이 책은 그가 이화장을 떠나 하와이로 간 뒤, 자신이 일군 대한민국을 그리워하며 보낸 5년 2개월 동안의 '눈물의 기록'이다. 정말이지 우리의 건국 대통령은 너무나 허망하고 쓸쓸하게 떠나면 태평양의 섬에서 눈을 감았다.

**내용 엿보기**


"7월19일 0시35분, 임종하셨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독립운동으로 건국을 성취해냈고, 전쟁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해내며 전 생애를 아낌없이 불살랐던 위대한 한국인 이승만, 그는 이역만리 떨어진 땅 하와이 섬에서 고국을 그리다 너무나도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다. 이승만의 오랜 지기(知己) 보스윅(W. Borthwick)이 교회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을 헤치며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관 앞에 섰다. 그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듯한 표정이 되어 이승만의 얼굴에 덮인 베일을 걷어내더니 울부짖었다.

"내가 자네를 안다네! 내가 자네를 알아! (I know you! I know you!)"

자네가 얼마나 조국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네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내가 잘 안다네! 친구여! 그것 때문에 자네가 얼마나 고생을 해왔는지, 바로 그 애국심 때문에 자네가 그토록 비난받고 살아온 것을 내가 잘 안다네! "내 소중한 친구여..."

공항을 향해 출발한 시간이 9시 30분. 히캄(Hickam Air Force Base, Hawaii) 공군기지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0시 30분. 히캄 공군기지에서는 미 의장대가 나와서 사열하는 가운데 6명의 육해공군 의장대가 조포(弔砲)를 발사하며 영결식을 진행했다. 그를 존경하던 미 장군들의 추도사와 함께 한 의장대원의 진혼 나팔소리가 열대의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이윽고 유해가 의장대원들에 의해 C-118 군 특별기에 실리자 뒤늦게 따라왔던 벤 플리트 장군도 존경하던 영웅과의 마지막을 함께 하기 위해 동행을 희망하여 모두 16명이 비행기에 탑승했다. 1965년 7월 21일 밤 11시 정각, 이승만의 유해를 실은 특별기가 서서히 활주로를 미끄러져가더니 이윽고 밤하늘 속으로 날아올랐다.

영결식을 마친 뒤 태평로를 지나 남대문, 한강교를 거쳐 국립묘지에 도착한 이승만의 유해, 태극기에 싸인 관이 서서히 의장대에 의해 영원한 안식처에 내려졌다. 1965년 7월 27일 오후 5시 45분이었다. 이로써 대한민국 역사의 한 장(章)도 더불어 막을 내렸다. 



# 생각 바꾸기

-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 -



한창희 지음 | 값 13,000원 | 신원문화사

##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

모든 게 생각하기 나름이다. 희망도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 생각 속에는 신의 계시도 있는 것 같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생각을 주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생각나게도 하고 때로는 누구나 똑같은 생각이 들게도 한다. 그런가하면 생각은 달콤하고 감미로운 사랑의 맛을 느끼게도 하고, 이글거리는 분노를 느끼게도 한다. 생각하기에 따라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새로운 힘이 생기기도 하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생각 바꾸기”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놓았다.

〈혀, 매력과 유혹〉으로 이미 말의 중요성을 설파한 저자 한창희가 이번에는 생각, 즉 마음을 바꾸어 세상을 다시 바라 보았다. 자신과 이웃들의 삶의 현장에서 고뇌와 번민을 하게 되는 각종 갈등 상황을 별것이나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빙그레 웃을 수 있게 하는 사고적 근거를 제시한다. 생각을 한번 바꿔보면 불행하게 느껴지던 것도 오히려 행복한 생각이 들게 말이다.

〈생각 바꾸기〉는 생각을 바꿔 습관하기를 권하는 행복지침서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고 또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기를 수없이 반복할 때 습관이 되는 것이다. 성경에 ‘내가 말한 대로 되리라’ 하는 구절이 있다. 생각을 바꾸어 말하고 실행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일 것이다.

## 사람 냄새 나는 사람들 이야기로 재미와 감동을 준다

〈생각 바꾸기〉는 저자 한창희를 비롯한 별별 사람들의 별별 이야기 모음집이다. 비슷한 듯하지만 다른 이야기들로 유별난 사연을 만들어내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때론 웃게 하고, 때론 코끝 찡한 감동을 느끼게 한다. 저자 한창희 이야기만 해도 그렇다. 활달하고 적극적이며 호오가 분명한 그도 정치가로서 부침을 겪으며 거듭난 삶을 살게 된다. 지난날 그는 옳지 않은 것은 용납하지 않았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으며 정도라고 판단하면 주저하지 않고 추진해나갔다. 그런 그가 지금은 변했다. 자연과 이웃을 바라보며 인생을 관조하며 살아가는 거듭난 한창희로 돌아온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책 〈생각 바꾸기〉의 등장인물들은 인간미가 넘친다. 그래서 사람 냄새가 난다. 그의 가족들과 동료, 선후배 지인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소시민들부터 내로라하는 경제인들은 물론 전·현직 대통령들까지, 그들의 소소한 이야기기서부터 비밀스런 이야기들까지 곳곳에 인간다운 모습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생각 바꾸기’ 라는 핵심 문구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두 권의 책을 낸 작가이면서 한나라당 부대변인과 민선 충주시장을 두 번이나 지냈고, 현재는 한국농어촌공사 감사로 돌아온 한창희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한 메시지는 삶이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

## 책속을 살짝 들여다 보면……

자연의 원리나 인간의 마음이나 변화무쌍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기에 인간 몸속이 소우주요, 자연계가 대우주라고 하는 것이다. 행복은 소우주 즉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는 데 달려 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 생각(生覺)은 문자 그대로 깨달음이 생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생각 못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무도 생각 못하는데 어떤 사람만 생각해내는 경우를 종종 본다. 생각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많다. 생각은 깨달음 곧 진리에 이르는 첫걸음이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도 바뀐다. 물 한 모금을 마셔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지는 것이다. 행복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생각에 달려 있다.



\* 저자 약력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한나라당 부대변인  
민선 충주시장 (4대, 5대)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현)



# 인간이 꿈꿔온 무지개

그다양함 속에는 함께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금강철강은 인류의 생활을 풍요로이 하는 기본 소재인 '철강' 분야의 30년 Know-how를 바탕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갑니다.

길은 다르지만, 그길은 한 곳을 봅니다.  
인류의 '함께하는 행복' - 금강철강 이가려는 길입니다.



**금강철강주식회사**

POSCO 냉연 지정판매점

본 사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5-3 서초월드오피스텔 701호

TEL : (02)3471-0001

FAX : (02)3474-4545

시화공장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63-1 시화공단 4다 502B/L

TEL : (031)499-0001

FAX : (031)499-0006

##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우남 이승만 박시님을 가슴 깊이 추모합니다”

1등 손사품질로 신뢰받는 믿음의 기업



**(주)동북아손해사정**

대표이사 **김규선**

- 본 사 : 서울시 종로구 윤니동 98-5 삼환기업B/D 9층 / 대표전화 02-763-7747
- 호남지사 :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1128-5 은명빌딩 3층 / 대표전화 062-222-7747
- 영남지사 : 부산시 동구 초량1동 1204-7 혁정빌딩 601호 / 대표전화 051-465-7749



신성홀딩스의 태양광 통합 브랜드

# Only one Total solution Shinsung Solar

태양광 산업 통합 브랜드 Shinsung Solar는  
최고효율 최고품질의 태양전지, 모듈, 시공, 장비까지  
국내 최고의 태양광 Total solution을 제공하는 Premium brand 입니다.

## 대한민국 태양전지 No.1 신성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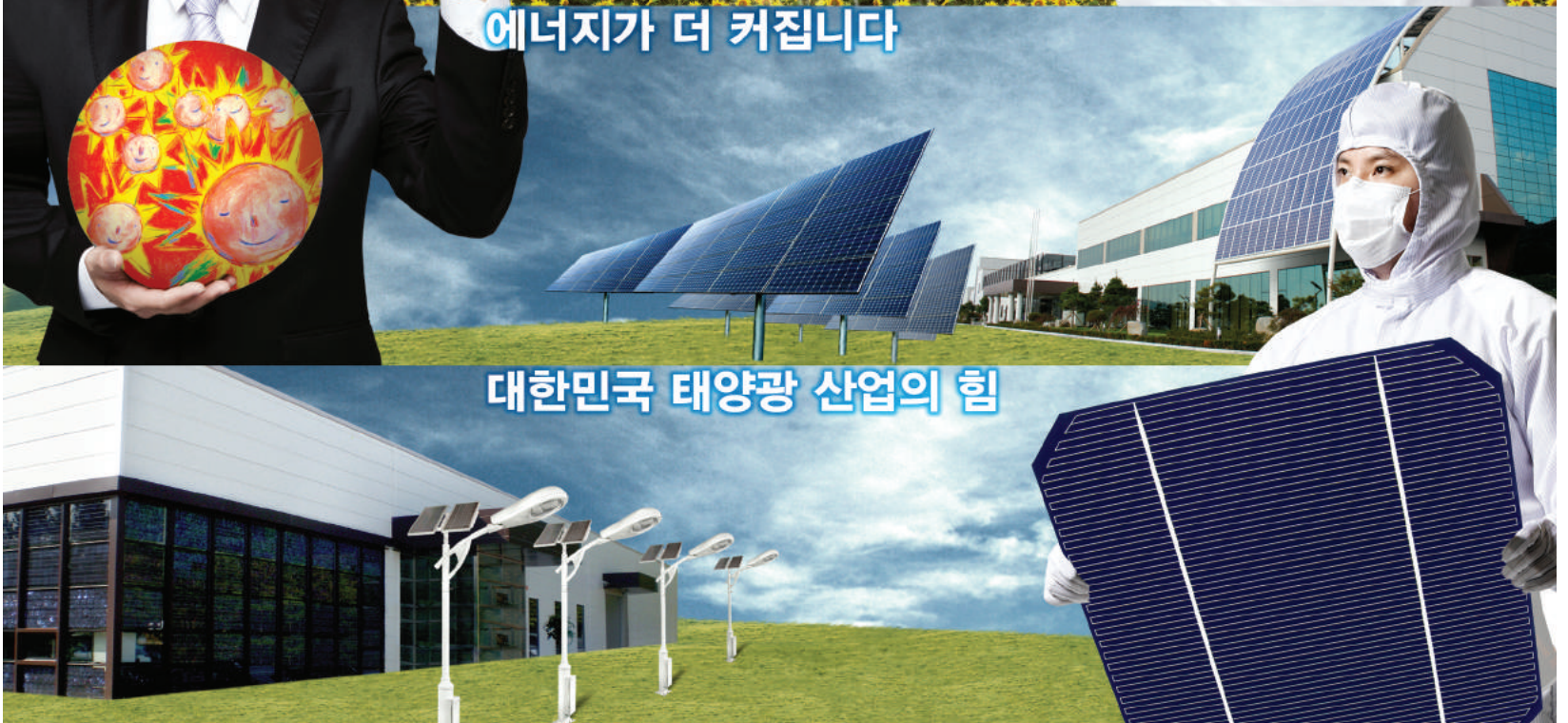
- 태양전지 양산 효율 18% 이상 달성
- 국내 최초 6인치 단, 다결정 태양전지 생산
- 국내 최초 3 Bus Bar, 컬러 태양전지
- 국내 최초 UNSW사와 공동연구개발



꿈이 더 커집니다



에너지가 더 커집니다



대한민국 태양광 산업의 힘

Cell T 031-788-9332 F 031-788-9584 E solar@shinsung.co.kr H www.shinsung.co.kr  
 Module T 031-788-9431 F 031-788-9490 E photovoltaic@shinsung.co.kr H www.shinsungcs.co.kr  
 463-4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404-1

**shinsung**  
SOLAR